

전남 교원들, '책' 읽으며, 치유의시간 갖다

전남교육청, '꿈너머꿈 겨울캠프' 글쓰기·명상 등 운영

전남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힘써 온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3~5일 충북 충주에서 '책으로 치유하는 글쓰기 교육'을 주제로 '꿈너머꿈 독서학교 겨울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2024년 고도원의 아침편지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독서교육과 함께 읽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전남 교원들이 다시 교육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독서인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캠프는 재단이 운영하는 '깊은산속울달샘'에서 열렸으며, 고도원 작가의 '꿈너머꿈 독서특강'과 '누구든 글쓰기 특강'을 중심으로 치유 명상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프로그램과 고창영 시인과 함께하는 '시 치유 테라피'가 운영됐다.

특히,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인 고도원 시인이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접목한 챗GPT 글쓰기 교육이 참가 교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년퇴임을 1년 앞둔 한 교사는 교직 인생 30여 년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을 맞이하는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글로 담담히 풀어내어 참가자



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참가 교원들은 "한적한 공간에서 책과 글쓰기에 집중하며 삶을 돌아보고 쉽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캠프에서 쓴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동료들과 책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AI 기반 독서인문교육의 확장을 이어가는 한편, 독서가 지닌 사유와 마음챙김의 가치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해 독서인문교육에 힘쓰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염선호 기자



보성군 청년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보성군 청년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읍면 청년회장과 보성군 청년연합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5년 5월 공식 출범한 보성군 청년연합회의 첫 성과 점검보고, 조직 운영의 내실을 다지며, 2026년 청년 정책 방향과 활동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사업 결산 및 성과 공유, ▲보성군 청년연합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2026년 새롭게 지역 청년회를 이끌 신입 읍면 회장단이 소개되며, 선배 청년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군 청년연합회는 이번 총회 논의를 토대로 2026년에도 청년 권익 증진, 지역사회 봉사, 문화 행사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성군 청년연합회 하상우 회장은 "2025년은 연합회라는 것발 아래 보성 청년들이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해'였다면, 2026년은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보성군 청년연합회는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출범 첫해에 보여준 놀라운 성과를 이어받아 올해도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 정책 지원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나주시, '100세 돌봄관리사' 위촉... 치매예방 본격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주시가 '100세 돌봄관리사'를 중심으로 한 현장 밀착형 치매예방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나주시는 올해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노인 돌봄과 복지 관련 자격을 갖춘 총 40명(재위촉 33명, 신규 7명)의 '100세 돌봄관리사'를 선발하고 지난 5일 나주시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돌봄관리사들은 관내 180개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인지활동 참여를 돕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치매 예방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형 치매예방 사업인 '100세 안심경로당'은 치매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인 경로당에서 이웃과 함께 다양한 인지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

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지난해 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전·후 어르신들의 주관적 기억력 감퇴와 노인 우울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참여자 다수가 높은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한편 나주시는 경로당 기반 치매예방 사업과 함께 치매 조기검진, 치매 검사비 및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학교 운영 등 예방부터 관리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치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치매 예방은 어르신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기쁜우리 아동센터에 'e-안심하우스' 준공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민)는 2월 6일(금) 영광군 기쁜우리 아동센터에서 지역 내 건축물의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e-안심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e-안심하우스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가구와 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수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바닥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LED 조명 설치 등이 있다.

한수원은 2023년부터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3년간 총 52억 원을 투입하여 904가구와 28개 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다. 이중 한빛본부는 영광군·고창군을 대상으로 160가구와 복지시설 7곳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흥겨운 노래로 여는 활기찬 아침! '새마을 노래교실' 개강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노래로 하나 되는 즐거운 소통의 시간에 함께하세요!" 광산구새마을회에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5일 오전, 광산구새마을회 3층에서 직장새마을운동광주광역시광산구협의회(박치숙 회장) 주관으로 많은 분의 기대 속에 새마을 노래교실이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운영되는 새마을 노래교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문화,여가 생활과 정서적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강식에는 김준행 명예회장, 유희권 협의회장, 백영실 부녀회장 및 새마을 가족 50여 명이 참석하여, 단순히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넘어, 새마을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첫 강의를 맡아주시는 성민아(직장회 부회장) 트로트 가수 겸 강사님의 열정적인 발성 훈련과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현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노래 연습을 넘어 감성을 담아내는 발성 훈련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들 이어져, 참여하신 지도자분들도 노래하며 일상의 활력을 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새마을 노래교실은 앞으로도 새마을 지도자분들의 정서적 교류와 문화 생활을 위해 계속된다. /오덕근 기자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